

광주시, AI·모빌리티 창업거점으로… 나주·목포 추가 ‘주목’

광주 등 ‘테크 창업도시’ 우선 지정 지역 주력산업 연계 6곳 선정 예정 창업인재 양성하고 기술실증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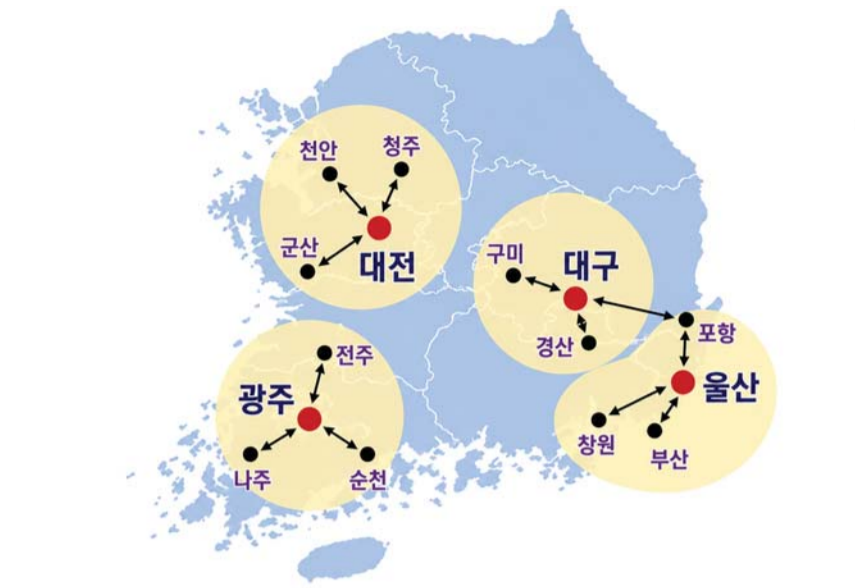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 나주와 목포는 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거점으로 특화산업 연계 도시로 역할이 기대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 ‘창업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인재와 공공데이터,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부터 성장,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 창업 생태계는 서울 등 수도권에 투자와 인재가 집중돼 지역 경



정부가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나주·천안·포항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권역별 창업 생태계 확산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쟁력이 크게 뒤쳐진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창업도시 순위에서 비수도권 주요 도시는 300위권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테크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이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는 AI와 에너지, 모빌리티 융합

기반 실증 도시로 육성된다. 국가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창업인재양성과 기술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목포가 각각 에너지와 해양·산업 기반의 ‘특화산업 중심형 도시’로 분류돼 향후 창업도시 추가 지정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나주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과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켄텍)을 기반으로 데이터·실증형 창업 환경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목포 역시 항만과 해양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물류·에너지 연계 창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정부는 창업도시 내 기업 정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2026년 4500억원 규모 지역 성장 펀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공데이터 개방, 공동기숙사·창업공간 확충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도시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와 자본, 기술이 결합된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며 “지역 거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창업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중·고교까지 시민체감 교육지원

울산시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울산형 시민체감 교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먼저 대중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에 한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의 50%를 지원한다. 등·하교는 물론 학원 이동 비용까지 절감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험활동 지원 사업인 ‘울산아이 문화패스’도 확대된다. 공연·전시 관람, 체육활동,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전체 약 13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포항시-울진군 ‘신라비’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항시-울진군은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신라 동해안 3비(포항 냉수리·중성리 신라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둘러보는 시민 현장 답사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경북 동해안 신라3비는 특정 사건에 대한 국가 판결을 기록한 공문서 성격의 금석문이다. /포항(경북)=김태우 기자

해남군 고구마 ‘호풍미’ 재배면적 확대

해남군에서는 병해에 강한 국내육성 고구마 신품종 ‘호풍미’로 재배면적 확대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덩이줄기썩음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호풍미’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미, 외관 상품성을 갖춰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특히 병해충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우수해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에서 앞으로도 조직배양묘 보급을 확대해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부산·진해경자청 진해신항CC ‘대중형’ 전환

진해신항CC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이번 승인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본격적인 운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진해신항CC는 경남·부산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골프장으로, 대중형 전환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양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5만명 찾는 영양산나물축제 내달 개막

내달 7일부터 4일간 열려 미식·체험 콘텐츠 확대

영양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영양문화원 및 읍내 시가지 일원에서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매년 안정적인 방문객 규모를 유지하며 영양군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축제는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식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함께 개선

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영양산나물축제는 최근 수년간 5만명대 방문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2022년 약 5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2024년 5만7000여 명이 방문, 2025년에는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형태로 운영되며 약 3만5000명이 참여했다.

올해 축제는 산나물을 활용한 미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 액화천연가스 설비 특화단지 신청

천연가스 액화공장, 전략 품목 선정

경남도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해 산업통상부 주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 핵심은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핵심 기술의 국산화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바다 위 LNG 공장’으로 불리는 F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사실상 전세계 FLNG 수주를 독점하고 있지만, 핵심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을 해외 기업이 독점해 선박 한 척을 지을 때마다 건조 비용의 약 2~3%를 기술료로 해외에 지불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라이선스 보유 해외 기업이 액화공장 핵심 기자재 공급업체까지 특정 해외 업체로 지정하는 ‘벤더 고정’ 구조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작 국내 조선사가 만드는 FLNG에 납품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

경남도는 이 구조적 사슬을 끊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공정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2031년까지 총 745억원을 투입한다.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거제시, 경남테크노파크,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해 ▲핵심 기술 및 기자재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전담 지원 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며 거제를 글로벌 조선해양플랜트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북도, 51억 투입해 섬 발전사업 추진

기반시설 확충·생활 인프라 구축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1억원 규모의 섬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생활 기반과 관광, 소득 창출을 연계한 구조로 추진되며 주민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섬 특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기반시설 분야에는 약 16억원이 투입된다. 군산 명도~방죽도 탐방로 조

성(4억원)을 비롯해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4억원), 선유3구 물양장 조성(1억3000만원),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포장,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관광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고 섬 지역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 사업에는 약 17억원이 투입된다. 여정도, 야미도, 신시도 등 6개 섬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소득사업 발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민 주도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전북=이대호 기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부산 유치

해양 디지털 서비스 글로벌 거점 도약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1921년 모나코에서 창설된 이후 IHO 사무국 외 조직이 다른 나라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IHO 총회에서 인프라센터 부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프라센터는 항해용 해도 관리, 해양정보

표준 개발 및 운영, 새 디지털 해도 국제표준(S-100)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운용 테스트 등을 담당하는 IHO의 기술전담 조직이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한국 유치 결정, 지난해 IHO 이사회 설립 결정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2년에 걸친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